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나주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일대. /뉴시스

“1.2조 인공태양, 나주 선정 확실시”... 내달 중순 최종 발표

전남 나주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후보지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나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나주를 가장 점수가 높은 '1순위'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60점), 정책 부합성(10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1순위 선정... '입지 안정성·R&D 집적·주민 수용성' 삼박자

나주가 1순위로 꼽힌 결정적 요인은 지질 안정성·대규모 부지 확보·에너지 인프라 집적·높은 주민 수용도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일원은 100만㎡ 이상 평탄지로, 공모

과기부 24일 평가 결과 통보, 나주 1순위, 군산 2순위 나주시, 2021년부터 치밀한 준비... “에너지 수도 입지” 나주 최종 선정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10조원 등 기대

조건(60만㎡)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부지 전체가 견고한 화강암 지반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와 670여 개 전력 기차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에너지·과기 연구기관이 집적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핵융합 연구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력·플랜트·정밀 제조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후속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나주시는 2021년부터 유치 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19개 읍·면·동 주민 설

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추진 중인 글로벌 AI데이터센터·AI컴퓨팅센터와 연계할 대용량·무탄소 청정에너지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 K-에너지밸리로 불리는 광주·전남 에너지 융복합단지과 연계해 핵융합 장치 제작·초전도 자석·진공용기·불량검 등 핵심 부품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 유일 에너지 특성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추진 중인 초전도자석 시험설비(SUCCEX) 사업 등과의 연계 시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과학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만의 사업이 아니라 광주·전남·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좌우할 국가 전략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 안전한 부지,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나주가 최적지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최종 선정 시 파급효과... “AI 시대 에너지 해법 1만명 일자리”

정부가 12월 중순에 최종 확정 발표에서 나주를 공식 선정하면 지역과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2037년 완공을 목표로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연구시설 조성 이후에는 약 300개 기업 유입, 최대 1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10조원 이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



광주시-전남대-조선대,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 산업 기반 인재양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광주시, 5년간 4700억 투입... 청년이 머무는 광주 혁신모델 완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와 함께 '2025 광주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특성화 지방대학(글로벌대학)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Global+Local, 글로벌)을 지향해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목표로, 인재를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지난 9월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통합)'에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가 손잡고 '인공지능+웰에이징 인

재! 광주의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공동 비전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박명희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조순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기업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글로벌대학 추진과제 발표, 비전선언, 참석한 학생과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양방향 공감토크 등으로 진행됐다.

공감토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근배 총장, 김춘성 총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학생·교수·교직원·시민들의 현장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누리호 4차 발사' 기상 조건 양호... 발사 지장 없을 듯 비 예보는 발사 시각 비켜가... “구름 사이로 누리호 관측 가능”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 전남 고흥에서 예정된 가운데 기상으로 인한 발사 지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누리호 4차 발사는 27일 오전 1시 전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고흥 날씨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당일 오전 6시부터 60% 확률로 비가 내리겠지만 현재까지 발사 시간대에 비가 예보돼 있지 않다. 또 남서풍 유입으로 바람이 불겠지만 누리호 발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고흥의 이날 오전 기온은 3도로 예보됐다. 기상은 누리호 발사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다. 우주발사체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은 온도, 습도, 압력, 지상풍, 고층풍, 낙뢰, 구름 등이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습도는 25도 기준 98% 이하, 지상풍은 평균 풍속 15m, 순간 최대풍속 21m가 기준이다. 또 비행 경로 상에 방해 발견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27일 구름 사이로 누리호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측 기준으로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며 “다만 비가 당일 예보된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